열흘 늦춰진 '양현종의 시간'

KIA, 양현종과 잔류 계약 협상 시한부 보류

양현종, 빅리그 도전 강한 의지 "30일까지 기다려달라"
조계현 단장 "에이스 선택 존중,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자유계약선수(FA) 양현종의 '선택'이 열흘 더 늦춰졌다.

양현종이 선수 인생 마지막 MLB 도전이라는 꿈을 위해 시간을 더 요청했고, 원 소속구단인 KIA 타이거즈는 30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양현종은 애초 20일 MLB 도전과 국내 잔류를 놓고 결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조계현 KIA 단장은 20일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며 "현종이의 에이전트가 30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30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나도 선수로 뛰었기에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우리 팀의 에이스를 배려하고 나중에 당당하게 우리 팀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현종이의 뜻을 존중하며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MLB 구단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KIA와 양현종 측은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KIA측은 지난 19일 "양현종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감을 나눴다"면서 "양현종 측에서 20일까지 미국 상황을 지켜보자고 해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하루 뒤 양현종 측은 30일까지 미국의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10일이라는 시간을 번 양현종은 당분간 빅리그의 제안을 기다린 뒤 '도전'과 '잔류'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KIA를 비롯한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들의 스프링캠프는 2월1일 막을 올린다.

양현종이 잔류를 선택할 경우 31일 전에 결론을 내려야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조 단장 "양현종의 에이전트와 30일 오후 만남이 예정돼 있다. 메이저리그 도전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나눈만큼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포스팅이 아닌 FA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구단으로서도 묵묵히 지켜보며 양현종의 선택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프로축구 2월27일 개막 K리그1 38라운드 복귀

프로축구 K리그가 2021시즌에는 지난해 쌓은 코로나19 대비 경험을 바탕으로 'K리그1 38라운드·K리그2 36라운드' 체제로 복귀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1년 프로축구 K리그1(1부)과 K리그2(2부) 개막일을 2월27일로 확정하고, 세부 일정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K리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 일정이 밀리면서 2월29일 예정됐던 개막전이 5월8일에야 킥오프됐다.

개막일이 늦춰지면서 리그 일정도 K리그1과 K리그2 모두 27라운드로 축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K리그 구단들은 관중 축소 입장과 무관중 경기를 번갈아 치르면서 수입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프로연맹과 K리그 구단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지난해 프로축구는 K리그1과 K리그2 모두 중단 없이 완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 프로연맹과 K리그 구단들은 올해 '리그 정상 복귀'에 도전한다.

프로연맹은 이에 따라 K리그1은 38라운드, K리그2는 36라운드로 2021시즌을 완주한다는 목표로 '일정 짜기'에 나섰다.

K리그1과 K리그2는 2월27-28일 주말에 일제히 1라운드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무관중 경기 개막이 불가피하지만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의 호재도 있는 만큼 프로연맹은 철저한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리그 정상 운영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진자 지속 발생 악조건 뚫고…

안세영, 태국오픈 가볍게 16강

안세영. 〈태국배드민턴협회/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이 토요타 태국오픈 16강에 진출했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9위 안세영은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토요타 태국오픈 32강전에서 피타야폰 차이완(태국)을 2-0(21-12 21-8)으로 제압하고 16강에 올랐다.

BWF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전영오픈과 10월 덴마크오픈 이후 세계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지난주 요넥스 태국오픈으로 일정을 재개했다. BWF는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전 선수 중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BWF는 지난 18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남자단식 바미디파티 사이프라니스(인도)가 양성 판정을 받고 기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이 프라니스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의 룸메이트 키담비 스리칸스(인도)도 대회에서 기권하고 자가격리 조처됐다. 지난주 열린 요넥스 태국오픈에서도 아담 하템 엘가말(이집트)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 LPGA 투어 '왕중왕전'으로 내일 개막전 스타트

허미정·전인지·박희영, 우승 '정조준'

전인지

박희영

허미정 /AFP·EPA=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해 7승' 태극낭자군단 '최다승 국가' 수성 시동
소렌스탐, 아마 부문 출전…존 스몰츠와 우승 경쟁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속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1시즌을 시작한다.

2021시즌 LPGA 투어는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드 스포츠 클럽 올랜도(파71)에서 펼쳐지는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로 막을 올린다.

이 대회의 120만 달러를 포함해 이번 시즌은 34개 대회에 총상금 7천645만 달러(약 844억4천만 원)가 걸려 있어 2019년 7천55만 달러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애초 2020시즌이 총 7천510만 달러 규모로 계획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33개 대회 중 18개만 열리면서 쪼그라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7승을 합작해 6승의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았던 한국 선수들은 올해도 '최다승 국가' 수성을 노린다.

2018-2020년 L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나설 수 있는 이번 개막전엔 총 25명의 출전자 중 3명이 한국 선수다.

2019년 2승을 올렸던 허미정(32)이 L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2018년 10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전인지(27)도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2월 호주에서 열린 ISPS 한다 빅 오픈 챔피언 박희영(34)도 나선다.

현재 세계랭킹 1-3위인 고진영(26), 김세영(28), 박인비(33)는 불참하는 가운데 세계 '톱10' 선수로는 4위 넬리 코르다(미국), 5위 대니엘 강(미국), 6위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출전한다.

이 대회는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LPGA 투어 선수들과 조를 이뤄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초청된 유명인들은 LPGA 투어 선수들과는 별도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특히 올해는 LPGA 투어 통산 72승에 빛나는 여자 골프의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51·스웨덴)이 유명인 부문에 나설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프로 선수들과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소렌스탐이 LPGA 투어 공식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2008년 은퇴 이후 처음이다.

앞서 두 대회에서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투수 출신 존 스몰츠(54·미국)가 유명인 부문에서 우승한 바 있는데, 스몰츠는 올해도 어김없이 출전해 3연패를 노린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가 2020년도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청춘을 돌려다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어르신생활체조 영상 제작

'온택트 시대' 적극 대응…어르신 건강 증진 '호평'

전남도체육회가 올해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해 어르신 건강 증진을 모색,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2020년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을 위한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 공모 결과 화순·해남·무안·영광 등 10개 시·군 14개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한계점이 드러나자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물 제작을 통한 방송 송출로 사업을 변경 추진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LG헬로비전 호남방송과의 협업을 통해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제목의 30분짜리 영상물을 제작했다.

'나는 자연인이다' 메인 MC인 개그맨 윤 택씨와 '몸짱 한의사'로 유명한 순천 출신 김경호 한의사를 비롯해 전남도체육회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중 에어로빅과 요가 등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김란광·백화연·김은하씨(생활체육지도자)를 섭외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오전 8시25분 LG헬로비전 호남방송(전남지역 채널 25)에서의 첫 방송될 예정이다.

'청춘을 돌려다오' 프로그램은 윤 택씨의 재치발랄한 진행과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박수체조와 라인댄스, 요가 등을 시연하면서, 김경호 한의사의 전문적인 지식 조언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남도체육회는 저작권 확보 우위를 바탕으로 시·군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들이 직접 지도하는 어르신들에게까지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유튜브 업로드를 통한 전남도 전체육인들에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가정이나 경로당, 양로원 등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